

생태공원

Ecological Park

조용현*

Cho Yong-Hyeon

최근 국내에서는 생태공원을 표방하는 공원 조성을 목표로 다수의 계획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미 완성된 사례도 있다. 그러나 이들 계획서에서조차 개념적 규정이 없거나 모호한 상태에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글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향후 지속되어야 할 과제이지만 잠정적이거나 생태공원의 개념을 규정해 보고자 시도하였다.

생태공원을 표방한 최초의 공원인 윌리엄 커티스 생태공원(The William Curtis Ecological Park)에서 보듯이 생태공원의 영문표기는 대개 Ecological Park라고 칭하고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의 전형을 'Ecological'과 'Park'라는 두 용어의 결합에서 찾아보고자 하였다(<그림-1> 참조).

먼저 생태적 또는 생태학적(Ecological)이라는 용어의 원형인 생태학(Ecology)에서 찾을 수 있는 단초들을 살펴보면, 생태학은 과거 분야학문인 생물학과 환경학의 통합적 접근 즉,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의 관계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였으며, 이는 세계관의 일종으로서 인류의 책무를 인식케 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로부터 생태학이라는 용어는 자연과학적으로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분야학문을 지칭함과 동시에 인간을 포함한 생물과 환경의 공존공영을 추구하는 접근방식을 찾는

학문으로 기대되기에 이른다. 따라서 생태학은 인간 중심적이기보다 자연원리 중심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통합적 또는 시스템적 사고방식을 매우 강조하는 특징을 가진다.

한편 공원(Park)은 산업혁명 이후 도시환경의 악화와 시민정서 파쇄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시민의 권리 향상과 사회복지 진작을 위해 도입된 시설이기 때문에 공원의 목적은 자연경관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 휴양, 정서생활 향상에 있다. 따라서 공원은 지극히 인간심리 중심적인 시설이며, 공원을 다룸에 있어서는 경합되는 토지이용 가운데서 시각적 질과 쾌적성을 담보하는 여가시설 확보에 강조점이 두어진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생태적이라는 용어에서 자연보전의 가치가 중요시되며, 이로부터 물질순환 및 에너지 흐름체계의 보전과 인간 간섭의 배제라는 생태적인 유지관리 방향이 설정될 수 있다. 아울러 생태적 행위 수단으로서 생태계 보존, 생태계 훼손 행위 제한,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환경의 창출, 생태연구 등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공원에서는 시민 이용 만족이라는 가치가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이용자 활동의 수용과 인위적 관리라는 공원 유지관리 방향이 도출될 수 있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도시환경연구부



〈그림 - 1〉 생태공원의 개념 도출

다. 아울러 행위 수단으로서 휴식, 여가 등 개인자유활동을 수용하고, 학습과 관찰 등 교육적 활동의 수용을 언급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생태와 공원의 합성어인 생태공원은 필연적으로 인간간섭의 배제와 인간 활동의 수용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두 가지 개념이 공존하는 공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공간 배치 및 유지관리 상에 완충공간 및 완충기능이 필

수적으로 요청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언급으로부터 생태공원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자연과 인간의 공존 실험장으로서 시민 정서 향상, 자연학습과 관찰, 생태연구를 목적으로 생태학적 원리를 적용한 공간조성과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생물서식환경 창출을 통해 조성된 공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